

한국 성교육에서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역할



문 두 건

고려의대 고려대학교구로병원

ATA GLANCE

본 주제에 관해서는 필자가 지난 30여 년간 비뇨기과 의사 및 교수, 성의학 특히 남성의학 전문가로 살아오면서 성교육에 관여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성교육에서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글을 읽고 공감하는 독자들 중 누군가에 의해서 그동안 필자가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못했던 제대로 된 국가 성교육을 꼭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

| 서론

인간과 의학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고려대학교 일반교양강좌에 ‘인간과 의학’(나중에는 ‘사람과 건강’으로 변경되었음)이라는 과목이 있었다. 일반의학상식이 부족하던 당시에 다양한 분야의 의학지식을 해당 분야 의대 교수가 의대생이 아닌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이었기에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과목으로 수강생이 많아 대강당에서 수업을 하였다. 필자는 당시 비뇨기과의 발기부전과 성병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는데 여학생보다는 예비군복을 입고 온 복학생들이 많았지만, 발기부전은 늘 강의 후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당시의 고려대학교 학생 정도라면 전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왔겠지만, 그들이 받아왔던 정규교육과정 내에는 제대로 된 성교육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0년대에 이르러 다양한 의학 정보의 홍수로 폐강이 되었는데, 이미 강의실에는 커플들이 많아졌고 과거 선배들보다 성지식이 풍부해서인지 더 이상 기립박수도 없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관습 하에서 천하게 공개하지 않고 개인이 간직하고 알아서 해결하는 폐쇄적 성문화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근대화, 산업화, 국제화를 거치면서 성문화도 개방되면서 성 상품화와 성 산업은 성행하게 되었고 성폭력이나 성범죄의 증가는 이미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성 관련 사회문제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서구식 성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었다.

| 본론

우리나라의 성교육 실태

1983년부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0단계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교육부는 성교육 내용을 연구하고 이에 따른 교사용 성교육 자료를 발간하도록 하였다. 성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남성과 여성 간의 정신적·육체적인 관계, 즉 성(性)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교육’으로, 성교육의 지도내용은 ① 성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 ② 남녀 상호 간의 도덕적인 태도 및 올바른 적용 방법, ③ 성적인 현상과 성에 관련된 문화적 행

위에 대한 건전한 태도, ④ 성적인 위협과 성병에 대한 예방 지도 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교육 [sex education, 性教育] (두산백과)

필자는 2012년 대한성학회 학술이사를 역임하면서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대한 발표와 패널을 수차례 거치면서 형식적인 학교 성교육을 벗어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전인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당시 대선기획단에 국가 차원의 전 국민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 용역사업으로 2013년 국가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전략개발, 2014년 전국 성의식 조사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성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다.

1983년부터 교육부에서 학교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성교육 교사나 학생이 아닌 학부모나 운영위원회의 입김에 의해 교재나 교육내용이 좌우된다. 실제 최근에 초등학교 보건 교사의 성교육 교재의 선택에 관한 문제가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성교육은 의무수업 시간이 아니고 입시교육이 우선이기 때문에 실제 성교육 수업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하물며, 남학생들은 여자 보건 교사에 의한 생물수업과 같은 주입식 성교육보다는 콘돔의 올바른 사용을 통한 성병 예방과 같은 실질적 교육을 원하는 반면 부모들은 입시교육이 더 중요하며 콘돔사용법 등은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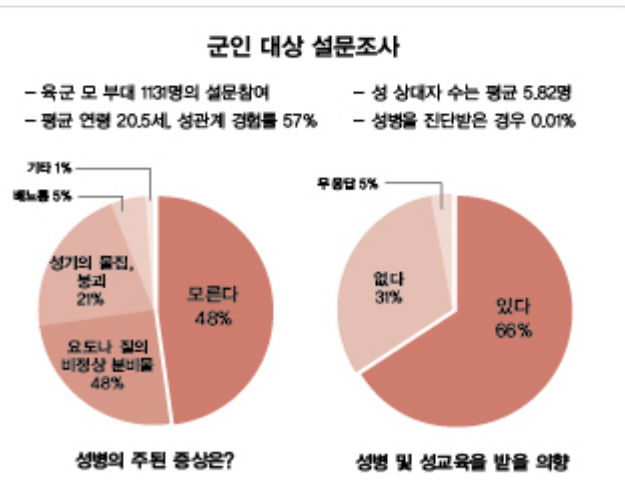
성교육은 교육대상자에 따라 생각이나 수용하는 자세

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 강사의 태도나 기법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생 성교육은 강압적이고 혼육식 주입교육보다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 청소년의 성교육은 장난기나 무책임한 태도는 배제하면서도 미성년자의 성적인 행동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제시해 주어야 하며, 남녀 함께 교육을 하는 경우에도 남녀는 평등하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집행과정을 살펴보면, 질병관리본부는 성병을 질병예방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학생 성교육은 교육부, 일반 국민은 복지부나 지자체가 시행하고, 군인의 성병 예방 교육은 국방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학교 성교육은 고등학교까지이며 실질적인 성생활이 활발하게 시작되는 대학생부터는 따로 마련된 성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군인에게도 성교육이나 성병 예방 교육은 필요하지만 나라 지키는 군인이 성병이 어찌고 하는 기사를 여럿을 피곤하게 하므로 아예 시도조차 되지 않는다. 이상적인 성교육은 학교 성교육을 거쳐 본격적인 성생활을 시작하는 청장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계층별로 특화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의 80프로 이상은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병예방이나 대처 방법, 만족스러운 성생활방법, 성기능향상이나 성인용품 사용법 등을 교육받고 싶어 한다. 대한민국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의 고령화도 문제이지만 노인들의 성 문제도 노령인구의 삶의 질 향



그림 1. 2013년 육군 3군단 장병 성병 교육 및 성교육 실태조사장면



상을 위해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성 소수자나,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에 의한 성 문제의 국제화도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를 예방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전하고 올바른 성 지식을 함양시켜야 한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오늘도 성차별, 성희롱, 성폭행, 성폭력, 성매매, 성병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도 해당 주무 부처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개별적으로 접근 관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은 초중고의 학교 성교육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대상 성교육이 전부이다. 각 단체와 직장에서는 성교육보다는 양성평등과 성폭력에 관한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성교육은 보건 교사나 성교육 강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하물며 성차별문제는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상담은 각종 사설 단체가 연계하여 담당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여전히 형식적, 단편적,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기존의 성교육이 더 나아지고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비뇨기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등 관련 임상과 의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역할

비뇨의학과 의사는 대한민국 어느 직종군보다 성에 대한 전문가임에도 대한민국의 성교육에서 제외되어 있다. 비뇨의학과 의사는 성생리와 비뇨생식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성 문제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뇨의학과 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

첫째, 성교육의 교재개발에 참가하여 좀 더 다양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특히, 그간 다루어지지 않았던 청장년층과 노년 성교육 내용을 남성 및 노년 건강관리 내용과 함께 개발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비뇨의학과 의사는 보건 교사나 성교육 강사보다 훨씬 우수한 강사이다. 대한비뇨기과 의사회의 개원의들은 소정의 강사교육을 받은 후 지역별 학교 교의나 지자체의 노인대학이나 복지관의 성교육 강사로 나서는 것이 전 국민 성교육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비뇨의학과 의사들의 사회봉사 참여를 통해 사회지도층 인사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고려대학교 인간과 의학 강의와 같이 각 대학교에서도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외에 정규교양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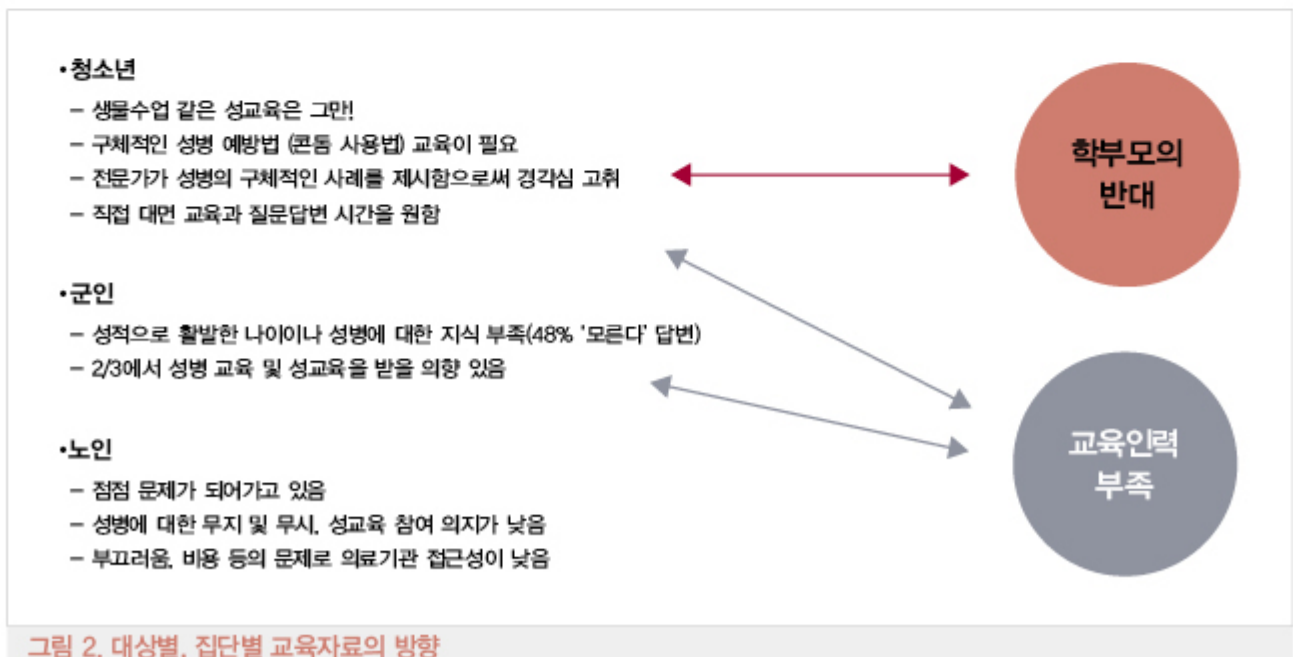


그림 2. 대상별, 집단별 교육자료의 방향



그림 3. 성교육 현장 및 국가 성교육 위원회 공청회

좌에 비뇨의학과 교수의 성교육 강의를 개설되어야 한다. 또한, 군 장병이나 간부들의 성교육은 비뇨의학과 전문 군의관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Ⅰ 결론

흔히, 대한민국의 성 문제나 성범죄라고 하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무방비상태에서 무분별한 음란물 노출, 성매매특별법 후 음성화된 성매매나 원조교제에 이어 최근에는 아동 성폭행, 학교 및 직장 내 성희롱, 성폭행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적인 미투 운동과 함께 사회지도층이라는 정치인들조차 성스캔들에 연루되어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지위를 일시에 잃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부생활, 애로 부부 등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남녀의 성에 관한 내용은 여전히 인기리에 공중파를 타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가장 기본은 제대로 된 성교육이다. 학교 성교육과 성매매 및 성병 예방, 성희롱, 성폭력 방지 교육은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통합교육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전인적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별, 계층별 표준화된 성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맞는 성교육의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 강사를 확보하여 교육시키고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비뇨의학과 의사가 성교육 교재개발 및 성교육 강사로 나선다면 기존의 보건 교사나 성교육 강사에 비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강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계층별 비뇨생식기 건강과 중장년층 및 노인들의 남성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성교육에 관해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URworld